

페미니즘과 정치적 실천

-태혜숙 지음,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나병철

1. 페미니즘의 정치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을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 결합은 탈식민주의 논의에 그저 여성을 덧붙인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의 탈식민주의는 늘상 여성의 범주를 간과하고 있었다. 반면에 영미나 프랑스의 페미니즘은 백인중심의 사유에 빠져 있었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그 두 흐름을 극복하고 기존의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을 넘어서려 시도한다.

태혜숙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여이연, 2001) 역시 그같은 이중적인 과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으로 인해 이 책의 이론적 기획 또한 이중적이다. 즉, 이 책의 논점은 페미니즘의 지평을 넓힐 뿐만 아니라 지구화 시대의 관심사인 민족담론의 새로운 방향을 암시한다. 지구화의 논리 이면에 강대국 중심의 초민족주의가 숨어 있다고 할 때, 이제 민족은 한물간 시대가 되었다고 외치는 것은 그 권력관계에 순응하는 것일 뿐이다.

그와는 달리, 기왕의 민족담론을 넘어서는 길은 민족의 이름으로 전유되어 온 집단들의 차이를 회생시키는 것이리라. 물론 여성은 그 집단들 중의 하나이다. 민족주의에 의해 전유된 여성들을 해방시킬 때 민족주의를 극복한 민족담론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민족중심주의를 넘어서는 탈식민주의에 이르는 길이다. 그와 동시에 그 탈식민주의에 근거한 페미니즘은 서구중심적 페미니즘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다.

이런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기획은 페미니즘을 정치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페미니즘은 단지 여성을 가부장제 가정에서 해방시키려는 것만은 아니다. 가정과 사회라는 사적/공적 영역은 실상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얽혀 있다. 들뢰즈·가타리가 말했듯이, 오이디푸적 가족관계는 억압적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규정되며, 가족은 모든 사회적 규정이 메아리치고 반향하는 장소가 된다. 더 나아가 비서구 민족에서의 오이디푸스 가족의 형성은 서구의 제국이 죽은 아버지의 자리에 새로운 초월적 기표(아버지=남근)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오이디푸스화된다는 것은 식민화되는 것이다. 제3세계 여성이 오이디푸스 가족관계에 갖히는 것은 실상은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에 지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가정에서 해방되는 문제는 식민지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서 해방되는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셈이다.

이처럼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를 접합시키는 것은 사회와 가정, 공과 사, 민족과 가족의 문제를 서로 연관된 맥락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이는 여성해방의 문제를 단지 사적 영역에 폐쇄시키지 않고 사회와 민족의 문제로까지 넓혀 정치화시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 페미니즘의 정치화는 계급이나 민족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여성의 문제를 부차적으로 만드는 기존의 사회운동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이제까지의 서구중심적 페미니즘은 그런 정치적인 맥락을 간과해온 셈이다. 물론 여성성에 근거한 식수나 이리가레이같은 프랑스 페미니즘 역시 정치적인 전략을 기획한다. 그러나 그들의 여성성이란 상징계 외부의 어떤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성을 결하고 있다. 프랑스 페미니

즘의 최대의 정치적 전략은 아마도 아방가르드 미학일 것이다. 그러나 미학의 정치화로 불리는 아방가르드는 엘리트주의적일 뿐아니라 현실성을 지닌 구체적 정치학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미학적 한계는 서구중심적 페미니즘의 정치적 한계에 상응한다. 남성중심적 상징계에 의해 억압된 여성성을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의 문제틀로 조망할 때에만, 하위주체로서의 여성의 위치는 비로소 정치적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페미니즘의 정치화이다.

태혜숙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그런 페미니즘의 정치화를 이론적인 맥락에서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주로 스피박을 예로 들면서 여성이 탈식민지적 저항의 근거가 된을 보여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의 이항대립적 저항의 방식과는 다른 길을 보여준다. 비판대상의 경계선 이쪽저쪽을 넘나드는 새로운 비판 방식, 그것은 교섭(negotiation)이다.

2. 메트로폴리탄 페미니즘과의 교섭

메트로폴리탄이란 런던, 파리, 뉴욕 같은 제국 본토의 대도시를 말한다. 메트로폴리탄에는 백인 이외에 식민지로부터 이주한 다양한 이민족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 페미니즘은 그같은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영미나 프랑스의 서구중심적 페미니즘은 메트로폴리탄 페미니즘이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또다른 입장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이다.

그러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메트로폴리탄 페미니즘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그들의 이론과 교섭을 벌인다. 여기서 교섭이란 단순한 협상이나 절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달리 교섭은 순수한 동일성을 깨뜨리는 타자성의 침투를 의미한다. 가령 스피박은 식수나 이리가레이 같은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말한 여성성/모성성을 귀중한 윤리적 가치로 받아들인

다. 그러면서 그것을 후기식민주의 시대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재조명하여 저항의 근거로 삼는다. 식수나 이리가레이가 주목한 여성성이 단지 성적 차이에서 연원된 여성의 순수한 동일성이라면, 그것은 그 윤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현실성밖에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남성중심주의에 의한 여성의 억압은 그런 심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남성중심주의는 가부장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 등이 중첩되면서 통과되는 공간에 위치한다. 한마디로 그것은 물질적 현실의 공간에서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 스피박은 이처럼 유물론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프랑스 페미니즘을 심리적 공간에서 물질적 현실의 공간으로 옮겨 놓는다.

그런데 다른 한편 페미니즘이 자본주의나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에 투쟁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의 물질성이며, 반제국주의의 근거가 민족이라면, 페미니즘은 여성의 몸을 토대로 삼는다. 물론 여성의 몸은 생물학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몸은 성적인 차이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 토대 위에 문화적, 계급적, 인종적 맥락이 지나가는 장소이다. 바로 그 때문에 페미니즘은 생물학적인 차원이거나 심리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여성의 몸은 프롤레타리아의 물질성이나 인종적 육체만이 아닌 여성 특유의 행위자(agent)의 위치를 갖고 있다.

그런 여성의 위치는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민족 의의 한계를 지양할 때 특별하게 드러난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서는 루카스를 인용하는 스피박의 논의를 통해 그 점이 설명된다. 스피박에 의하면, 루카스의 국제주의란 여성적인 개성의 생산을 방해하는 과도한 국가담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다. 당연히 그런 국제주의는 후기자본주의의 권력이 선도하는 국제화나 세계화에도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루카스의 국제주의는 “이슬람문화와 제국주의문화가 불연속적이고 모순적인 관계를 맺으며 형성된 알제리 여성집단을 주목한다”(108쪽). 그같은 국제적 문화는 제국주의적 세계화는 물론 그에 저항하는 토착적 민족주의도 넘어선다.

알제리의 민족해방투쟁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항상 여성의 권리를 간과해 왔다. 그런 남성중심적 민족주의를 여성성의 위치에서 지양할 때에만 자기중심적 민족인식을 넘어선 새로운 민족담론이 나타날 것이다. 알제리 여성집단은 이슬람문화와 제국주의문화를 교섭(negotiation)시킴으로써 그것을 보여준다. 알제리 여성들의 집단성은 두 가지 점에서 국제적이다. 하나는 토착적 민족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점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제3세계 여성들과 국제적 유대를 나눈다는 점에서이다. 그러한 이질성과 유대성에는 여성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식수가 생각한 여성적 유대는,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후기자본주의의 여성들에게서는 결코 현실화될 수 없고, 상상적으로만 그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알제리 여성들이 처한 제3세계의 환경에서는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다. 메트로폴리탄 페미니즘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과 교섭을 벌여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여기서는 또한 민족주의문화와 제국주의문화의 교섭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책에서 루카스나 스피박을 통해 설명되는 교섭은 호미 바바가 말한 혼성성과도 유사성을 갖고 있다. 교섭을 통해 나타나는 혼성성(hybridity)은 순수한 동일성을 타자성으로 깨뜨리는 원리를 지닌다. 다만 여기서는 여성성의 위치를 통해 그것의 실현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물론 타자성을 실현하는 여성성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의해 재조명된 것이다. 메트로폴리탄 페미니즘이 상징계 외부의 공간(혹은 기호계적 공간)에 여성성을 위치시킨다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교섭을 통해 상징계와 실재계 사이에 낀 공간을 주목한다. 그 곳은 역사적 현실의 공간인 동시에 또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장소이다.

3. 해체론과 마르크스주의의 접합

이 책에서 소개되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성을 남성중심주의와 인

종주의를 전복하는 원리로 사용하는 점에서 해체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와도 교차된다. 요컨대 스피박의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와 해체론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스피박의 해체론적 마르크스주의는 과거의 레닌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몇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우선 후자가 프롤레타리아를 투쟁의 주체로 삼는 반면 전자는 이른바 하위주체(subaltern)를 주목한다. 하위주체란 정태적인 본질론의 위험을 지닌 프롤레타리아와는 달리 복잡하고 다원화된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가능한 개념이다. “하위주체는 자본주의 사회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포괄하면서도 성, 인종, 문화적으로 주변부에 속한 사람들로 확장될 수 있다”(117쪽).

또한 레닌주의가 남성중심적이고 단일론적인 주체를 상정하는 반면 해체론적 마르크스주의는 다중적 주체를 내세운다. 다중적 주체는 계급이 인종을 전유하거나 민족이 여성을 전유하는 단일론적 사상들(계급론이나 민족주의)을 거부한다. 그와 함께 여성을 보편적인 본질로 규정하는 논의에도 반대한다. 그들과 달리 다중적 주체란 계급, 인종, 성, 문화, 세대 등이 내재적으로 교차되어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역동성을 지닌 주체를 말한다.

다중적 주체를 주목하는 페미니즘은 성적인 주체를 유념하면서도 “인종,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의 다중적 축들을 가로질러 위치하는 고도로 차이화된 주체로서 페미니즘 주체를 다시 상상한다”. 이 개념은 “주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페미니즘을 여러 사회적 운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한다”(140쪽). 그런 주체성을 지닌 페미니즘을 이론화하기 위해 이 책은 몸의 유물론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저자가 설명하는 몸의 유물론은 해체론적 마르크스주의의 다중적 주체론과 연관되어 있다. 마르크스가 말한 물질적 생산은 비단 노동자의 경제적 생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체론적으로 재해석된 물질적 생산은 삶의 물질성, 즉 프롤레타리아의 물질성 뿐만 아니라 인종적 육체와 여성의

몸을 포괄한다. 몸의 물질성은 주체적 존재방식 및 타자와의 의사소통의 근거이다. 그점에서 몸은 주체성에 선행한다. 몸은 생물학적 존재만이 아니며 또 초역사적인 보편적인 존재도 아니다. 물질적 근거로서의 몸은 성적 특수성 뿐만아니라 문화적, 계급적, 인종적 맥락들이 교차되는 장소인 것이다. 따라서 몸은 다중적 주체의 유물론적 근거가 된다.

몸의 유물론이 주목받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데 생산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몸은 개인적 쾌락과 욕망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운동과 변혁을 위한 욕망을 생산한다. 그것은 “몸이 젠더, 인종, 계급, 세대 등의 다중적 코드들이 각인되는 장소로서 주체의 물질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142쪽).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중적 주체와 몸의 유물론은 해체론적 마르크스주의의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해체론적 마르크스주의는 물질적 삶의 영역이 이질적이고 복합적이라고 보며, 그에 따라 사회운동의 행위주체 역시 다중적이고 복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이클 라이언이 주장하듯이, 다중적 행위주체가 만드는 새로운 문화를 정치적 무기로 본다. 이는 스피박의 페미니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정치적 무기로서의 문화는 정치, 경제, 법률, 교육, 의식주 등 물질적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삶의 형식을 만들어 가는 운동으로 나타난다. 여기서의 문화란 예술적 창조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적 삶의 형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스피박은 ‘교섭(negotiation)’이라는 개념으로써 그같은 문화적 운동을 주장한다. 그녀는 서구의 문화적 제도, 텍스트, 가치, 이론적 실천을 단순히 거부하기 보다는 교섭을 벌임으로써 변화를 가져오려 시도한다. 이는 그녀가 상징계와 실제계의 사이에 낀 공간에서 활동함을 말해 준다.

그러나 스피박이 말하는 정치적인 것이 무엇인가는 모호한 질문으로 남아 있다. 이는 상징계의 질서를 해체시키려는 시도에서 구체적 현실상황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스피박의 이론들이 실제적으로

제3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에 대해 스피박은 대답을 회피한다. 과거의 대서사가 지녔던 정치적 행동의 에너지를 이론의 유희 속에 잠재우는 듯한 협의는, 마르크스주의와 해체론을 접합시키려는 이론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스피박과 그녀를 소개하는 이 책의 논의 역시 그런 한계를 드러낸다. 문화의 정치화는 과거의 미학의 정치화와 유사하게 실제적 사회운동의 폭발력을 상실할 위험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 필자 : 한국교원대 교수